

‘놀토’ 자료집 나왔다

‘놀토’를 어린이 포교 마당으로 적극 활용할 자료집이 나왔다.

조계종 포교원과 사단법인 동편 어린이 불교교육연구소(소장 심산)가 공동으로 발간한 <사찰체험 프로그램 자료집>은 주 5일 수업제 노는 토요일에 직접 활용한 프로그램과 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선별해 각 사찰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이 자료집은 심산 스님의 8명의 선생님들이 집필했으며, 어린이 포교에 관심 있는 사찰과 스님, 지도교사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심산 스님은 “이 자료집은 어린이들에게 사찰로 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사찰로 거듭나기 위한 또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거듭나는 차원에서 의도·기획됐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칠월칠석 선남선녀 봉은사에서 만나요

견우와 직녀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칠월칠석에 젊은 남녀들의 인연을 맺어주는 행사가 사찰에서 열린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해)가 7월 30일 오후 2-8시 보우당에서 개최하는 ‘견우와 직녀의 아름다운 만남’ 미팅 페스티벌이 바로 그것이다. 일상적인 미팅 형식에서 벗어나 조별 모임과 빙고게임, 도전노래방, 파트너 게임 등의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으로 즐겁고 자연스러운 만남을 유도한다.

주지 원해 스님은 “칠월칠석을 의미 깊게 보내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02)3218-4820-8 이은비 기자

생명나눔 부산본부 창립 본부장에 원범 스님

부산지역에서도 생명나눔실천이 시작된다.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는 7월 21일 부산 국제신문 대강당에서 창립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서울본부 외에 광주, 전남, 충남, 제주에 이어 4번째다.

부산지역본부는 장기기증 신청 및 결연사업 뿐만 아니라 장기기증 대국민홍보사업을 통해 부산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증대시키고, 혈액 질환 환우들을 위한 헌혈 관련 사업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금 모금 및 지원사업 등을 펼칠 계획이다. 이은아 기자

태풍·폭우에 10여 사찰 피해

축대·칠성각 무너지고 물에 잠긴 곳도 정토회 등 긴급 구호단 파견 복구 작업

집중호우와 제3호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 전국 10여개 사찰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사찰은 지역민과 관·군의 도움을 받아 피해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양양 낙산사는 7월 10일 폭우로 해수관음상 앞 축대가 무너지고 의상연구소 마당 경사면과 화장실 마당 경사면이 무너져 270t 가량의 토사가 쏟아져 내렸다. 기거중이던 대웅은 긴급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낙산사는 14일 현재비가 멈추지 않아 추가피해가 없도록 응급조치했다. 17일째 비가 멈출거라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복구를 위해 복구인력과 복구비를 강원도와 인근부대에 요청해놓고 있다.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한 곡성 도립사는 10일 칠성각이 완파되고 보광전과 응진전이 일부 파손됐다. 보광전에 보관된 보물 1341호 괘불과 칠성각에 있던 삼존불, 후불탱화 등도 크게 훼손됐다. 도립사는 대응전 안에 모셔져 있던

불상 등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등 재난을 막기 위해 예방조치를 취했으며, 현재 소방당국과 함께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 범어사는 10일 한꺼번에 쏟아진 폭우로 설법전과 제2주차장 사이에 토사가 쏟아져 도로 10m 가량이 유실됐다. 부산 용수암도 10일 오후 1시에 100평 규모의 지하 주차장으로 1000t 가량의 토사가 쏟아져 내렸다. 전각과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합천 해인사는 10일 도량 곳곳의 축대가 무너져 토사가 흘러내리고 집수장 수도관이 파열돼 12시간 동안 단수가 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신내암자인 금대암과 성전암을 잇는 도로와 등산로도 흘러내린 토사로 차단됐다. 그러나 해인사는 비가 그치자 12일 무너진 축대를 다시 쌓는 등 울퉁이 나서 착실히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태고종 비구니강원이 있는 울산 보덕암은 11일 폭우로 도량 전체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 태고종 총무원에 피해를 접수한 직후 순천



회재로 큰 피해를 입었던 양양 낙산사가 이번 폭우로 해수관음상 앞 관음전의 축대가 무너져 비석이 드러나는 등 또다시 피해를 입었다. 사진제공=낙산사

침수했다. 이로 인해 요사채에 보관 중이던 200여점의 그림과 고서 등이 물에 잠겼다. 남해 화방동사는 본관 건물 뒤 절까지 경사면 2군데에서 토사가 쏟아져 내렸으나,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진주 토왕암도 대웅전과 산신각 주위로 15t 가량의 토사가 밀려내려와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태고종 비구니강원이 있는 울산 보덕암은 11일 폭우로 도량 전체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 태고종 총무원에 피해를 접수한 직후 순천

선암사 강원 학인 80여명을 긴급부임해 복구를 완료했다.

수행공동체 정토회는 태풍과 수해 피해를 입은 진주 문산지역에 11일 30여명으로 구성된 긴급구조단을 파견했다. 구조단은 12일부터 복구활동에 힘을 보태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선재수련회를 진행 중이던 대학생 정토회도 11일 울산 두서면 활천리에서 제방 복구 작업에 참여했다.

박영준·배지선·이은아 기자

절에 휴식공간 있었으면...

일반인들 사찰서 가장 불편한 점 꼽아

사찰에 대한 이미지는 조용하고 엄숙하며, 가장 불편한 점은 휴식공간의 부족, 사찰 방문시 가장 원하는 것은 정신적인 여유와 휴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이 발행하는 <불교와 문화>가 월간 발행을 기념해 대학생 및 사회복지사, 주부, 직장인 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반인이 보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사찰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밝혀졌다.

응답자들은 사찰의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조용하고 엄숙하다(36.2%)’, ‘마음의 안정과 평화(28%)’, ‘아름다운 자연환경(20.7%)’ 순으로 답했다.

또 사찰의 시설에 대해서 ‘불만한 시설이 없다’는 응답이 42.1%를 차지했으며, 29.3%만이 ‘불만한 시설이 있다’고 말했다. 이용하고 싶은

시설은 대웅전을 비롯한 전각(38.5%) 다음으로 휴식공간(31.9%)을 꼽았지만 정작 불편한 시설을 묻는 질문에서 휴식공간 부족이 33.2%로 1위를 차지했다.

사찰방문시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정신적인 여유와 휴식(53.9%), 불교 문화체험(17.4%), 스님과의 진솔한 대화(11.2%), 불교교리나 문화공부(8.7%) 등의 순으로 꼽았다.

김원우 기자

유언노트 ‘연화지기’ 배포

불교장제 전문업체 연화회가 ‘유언노트’를 발간하고 전국 사찰에 무료로 보급한다. 또 원하는 사찰에는 무료강연도 실시할 계획이다. 연화회는 유언과 유언공증, 장례법 등을 꼼꼼히 적을 수 있는 유언노트 <연화지기>를 발간했다. (02)734-4444 이은비 기자

난치병 어린이에 성금 전달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조계종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지현)은 7월 10-11일 서울삼성병원과 중앙의료원을 방문, 지난 4월 봉족 기간 내 ‘1배-100원 모금 3천배 월 야장진기도’를 통해 모은 성금 1100만원을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전달했다.

지현 스님은 “비록 큰돈은 아니지만 조계종 산하시설 종사자들의 간절한 기도와 땀방울로 이루어진 성금”이라며 “그날 기도하셨던 분들은 지금도 모든 난치병 어린이들의 쾌유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성금을 전달받은 임성정(13)양의 모친은 “건강하던 아이가 갑자기 쓰러져서 모야모야 병(소아중풍)과 함께 뇌경색이 돼 절망으로 눈앞이 캄캄했을 때, 서울삼성병원 지도

법사 견희 스님께서 고통을 알고 희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셨다”며 “그 동안 선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격정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편지글을 통해 전했다.

재단은 이번 성금전달식을 통해 임양을 비롯한 이상준(3·신장암), 오천우(1·초극소 미숙아), 박강석(9·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등 서울 삼성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서울아산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등에서 투병 중인 1-14살 난치병 어린이 11명에게 각 100만원을 전달했다.

재단은 지난 2001년부터 의료비 부담이 큰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의료비를 전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재단은 7월 20일 서울 동부 여성문화센터 3층에서 종로구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식을 열 예정이다. 이은비 기자

지리산 햇빛발전소 10월 건립

인드라망, 월 120만원 절감

인드라망생명공동체(이하 인드라망)가 오는 10월 남원 지리산교육원에 차세대에너지원으로 꼽히는 친환경 햇빛발전소를 건립한다.

인드라망은 지리산교육원 주차장 부지에 15Kw급 자가용 햇빛발전소를 건립한다고 7월 10일 밝혔다. 지리산교육원에 필요한 전기를 모두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월 120만원의 전기료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억 4천만원의 건설비용을 지자체와 인드라망이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인드라망은 후원금 마련에 돌입했다. 후원자에게는 지리산 명상관 무료 이용, 인드라망의 각종 강좌 할인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박봉영 기자

조선왕조실록 어디로 갈까?

환수추-의원모임 소장저 문제 논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47책의 소장처를 놓고 불교계와 서울대 측의 대립각이 첨예해 지고 있다. 문화재청을 비롯한 관계 정부부처도 실록이 원래 있었던 월정사 사고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해야 할지의 문제를 놓고 난감해 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조선왕조실록환수위원회(공동의장 정념·철안)와 실록되찾기위원회(공동의장 김원웅 외 6명)는 7월 1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실에서 ‘실록 소장처 지정’ ‘조선왕조실록 환국 고구제’ 등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었다. 노병철 기자

회의를 통해 관계자들은 “실록을 강탈했던 일본 측이 소장처를 정한 모순 등을 근거로 서울대 규장각의 실록 소장을 강력히 반대하며 ‘실록환운동이 순수 민간차원에서 전개된 만큼, 7월 22일 월정사에서 열리는 고구제 행사도 민간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실록의 관리와 소장처는 월정사와 독립기념관, 국립고궁박물관 등에서 문화재 보관 능력, 반환문화재의 역사적 의미,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가의 여부 등을 고려해 차후 결정하기로 결의했다.

성남 영장산 봉국사 크스님 초청 백중 7일 지장기도법회

모시는 말씀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불기 2550년 8월 8일(음력 7월 15일) 백중절은 수행하시는 많은 스님께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지옥문이 열리고 조상님 및 인연 있는 영가를 위해 천도기도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에 저희 성남 영장산 봉국사는 크스님을 초청하여 조상천도 7일 지장기도 법회를 봉행하여 지장보살님이 지옥중생을 모두 구제하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대원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수희 동참하시어 악업을 소멸하고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봉국사 주지 효관 합장

장 소 : 봉국사 심검당
계좌번호 : (예금주:봉국사)
국민 213637-04-000060
동참금 : 5만원

법회 일정



- 4재 : 8월 5일 (음 7. 12)
 - 백중기도와 신행
 - 정관스님 (명주암 회주)
- 5재 : 8월 6일 (음 7. 13)
 - 백중 공양과 방생의 날
 - 자광스님 (문정 김룡사 회주)
- 6재 : 8월 7일 (음 7. 14)
 - 백중 천도기도의 공덕
 - 정목스님 (한국정토학회 이사)
- 백중(회향) : 8월 8일 (음 7. 15)
 - 백중의 참된 실천적 의미
 - 암도스님 (백양사에서 수행중)

- 1. 칠석기도 안내
 - 일시 : 불기 2550년 7월 31일(음 7월 7일) 오전 10시
 - 장소 : 봉국사 심검당
- 2. 출성 크스님 다례제
 - 일시 : 불기 2550년 8월 1일(음 7월 8일) 오전 10시
 - 장소 : 봉국사 심검당

- 3. 방생기도 법회 안내
 - 일시 : 불기 2550년 8월 9일(음 7월 16일)
 - 장소 :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 상원사
 - 출발시간 : 오전 7시
 - 출발장소 : 봉국사

